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 최상미, 주수영*

*교신저자 : sooochoo@korea.kr, 043-719-7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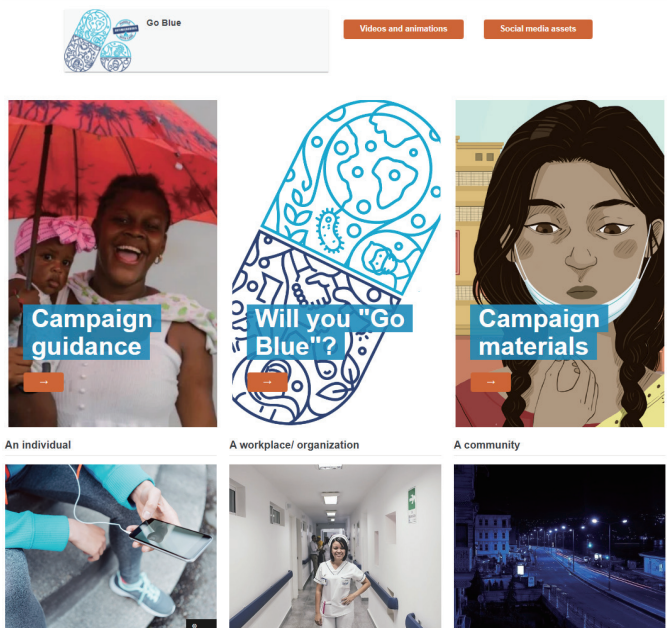
20세기 초 항생제 개발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크게 향상된 반면, 항생제 사용에 따라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을 보이는 세균도 함께 발견되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5년 5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였으며, 세계보건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 on Antimicrobial Resistance)」이 승인되었다. 글로벌 행동계획에서는 “①사회적 인식제고(Awareness), ②감시체계 구축(Surveillance), ③예방을 통한 감염 감소(Prevention), ④적정사용(Optimal use), ⑤연구개발 추진(R&D)” 5대 전략목표(World Health Assembly, 2015, Resolution WHA68.7)를 제시하며, 항생제 내성 인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World Antimicrobial Awareness Week, WAAW)’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의 원인과 영향은 인간, 동물,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 원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에서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국가와 글로벌 기업·단체들도 동참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운영하며, “인식의 확산, 항생제 내성 방지(Spread Awareness, Stop Resistance)”를 슬로건으로 하여 항생제 내성 인식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캠페인에 동참하려는 국가·지역·조직·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한다. 먼저, 온라인 확산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3개 기구의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홍보하고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지지하고 항생제 내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해시태그(#WAAW #AntimicrobialResistance #AMR #HandleWithCare)를 지정하여 항생제 적정 사용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GO Blue”라는 글로벌 컬러 캠페인도 진행하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생제 내성을 인식한다는 의미로 개인은 파란색의 옷·소지품 등을 착용하고,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파란색으로 꾸며 참여할 수

What's New? Latest WAAW 2021 Releases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단체나 지역사회의 경우에도, 직장 시설·지역의 랜드마크 등을 파란색으로 칠하거나 푸른빛으로 비추는 등으로 항생제 내성 인식 캠페인에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6.1 DID¹⁾이고,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은 26.1% 수준²⁾이다. 또한, 반코마이신, 카바페넴 등 주요 항생제의 내성률과 감염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 인식 개선을 위해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에 맞춰 매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 일반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³⁾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 일반인 대상 조사(2017년 및 2019년)에서 '증상이 나아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3%, '항생제를 먹지 않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약 27%로 잘못 인지한 경우가 확인되었고, 의료인 대상 조사(2020년)에서도 '감기 등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5%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는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11월 18일~11월 24일)에 맞춰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슬로건인 항생제 내성 인식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을 참고하여, 올해 항생제 내성 예방 홍보 슬로건을 "내 몸을 위한 항생제,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써주세요"로 정하였다. 또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과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 실천을 위한 예방수칙이 담긴 포스터와 항생제 바로 알기 퀴즈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중교통 관련 시설에 게재하고, 질병관리청과 관련 학회·협회 누리집(홈페이지), 질병관리청 공식 소셜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을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는 첫걸음인 인식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https://www.who.int/campaigns/world-antimicrobial-awareness-week/2021>.
2. World Antimicrobial Awareness Week: Campaign Guidance 2021 (20 September 2021).

1) DID(DDD/인구 1,000명/일) : 인구 1,000명당 하루에 얼마의 DDD를 소비했는지 의미

– 예) 26.1DID: 2.61%의 인구집단이 매일 평균 유지 용량의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의미

– DDD (Defined Daily Dose) : 의약품 소비량 측정단위로 성인(70kg 기준)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유지 용량을 의미

2)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 및 처방적정성 평가 체계 개발 연구(2019년)

3) 일반인(2017.10.29.~10.30. 1,000명, 2019.9.1.~12.26. 2,087명), 의사(2020.10.21.~11.30. 195명) 대상 인식도 조사 결과